

1 출가 진흥을 위한 제언 1

‘출가=자유’ 인식 확산시켜야

12년전 월정사 주지에 부임하면서 출가 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단기출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출가자가 줄어든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었지만 그동안 왜곡돼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바로 알리자는 의미가 컸습니다.

조선시대 승유역불정책을 겪으면서 스님들의 사회적 위상이 낮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레 출가는 일반 대중들에게 비주류적, 은둔적, 폐쇄적, 소극적인 삶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출가는 그 자체가 가치추구의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근본적 존재 의미를 해결하는 구도의 길입과 동시에, 세상 속에 구세대비의 원력을 회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출가 속에는 세간과 출세간의 이분법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행을 통해 불이론(不二論)임을 확립시키고 자비실현의 길을 걸어가갈 수 있는 성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출가정신 공감 어려워

굳어진 출가 이미지 제고 필요

단기출가 프로그램 권역별 확대

내부 교육 과정 개발·변화 필요

하지만 출가자의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신적 측면보다 물질적 측면이 심화되고 있어 정신적 가치지향의 삶이 대중들에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가정신을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해도가 부족한 셈입니다.

지난해 열린 ‘중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도 발표됐듯이 지난 10년 사이 남성 출가자는 30%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 출가자는 2배인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출가자 평균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인재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을 뿐 아니라 출가자의 명맥마저도 끊길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론이 대두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출가 본연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출가의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구속된 삶이 아니라, 출가 전보다 자기 에고를 해체시키고 인연의 속박과를 속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계도가 이어지다 보면 우리



정념 스님

월정사 주지·단기출가학교장

사회 전반에 화석처럼 굳어진 ‘출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출가자의 감소는 불교계 전반적 추세인 만큼 우리 조계종 뿐 아니라 각 종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개발해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단기출가 기간도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다양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의 선택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결과 수치가 말해주듯 수료자 2500여명 중 약 10%에 달하는 체험자들이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출신의 출가자수도 불교계 전반적 추세의 역풍을 피해갈 수 없듯이 출가자수는 10년 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 공감과 감성, 문화적 패턴의 시대 흐름에 맞는 강의와 프로그램의 질적 변화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감성을 담아 출가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출가 체험기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출가의 참의미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계종이 2013년 제정한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대한 특별법’의 꾸준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승가대학·대학원 우선선발 특전, 공채 주지 우선 인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은 출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가한 청소년 출가자수가 1백 명을 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단기출가·청년학교... 새로운 출가문화

21세기, 변화하는 출가 방식

시대가 달라졌다. 무명초를 밀어내고 먹물 옷을 입고 엄숙히 행자 생활하는 것만이 출가였던 시대가 아니다. 다양한 출가 방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발심 출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의 단기출가학교다. 단기출가학교는 2004년 개원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발심한 일반인들이 삭발염의를 하고 스님이 되기 전 단계인 행자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단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단기출가학교에 들어가면 30일 동안 스님들의 출가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 행사교육과 똑같은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외출과 서신교환, 전화는 사용할 수 없다. 매일 예불과 울림은 물론 자갈길 위에서의 3보1배가 이뤄진다. 마지막에는 3천배 정진도 진행된다. 치열한 정진에 참가자 없을 것 같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3000여 명이 단기출가학교를 통해 출가 문화를 몸소 느꼈다.

단기출가학교의 인연은 수료로 끝나지 않았다. 30일 출가의 인연은 기수별로 맺어져 서로를 견책하면서 함께 도반의 길을 걷고 있다. 또 더러는 큰 발심을 일으켜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조계종에 출가한 스님이 200여 명을 넘어선다.

최근에는 변화도 주고 있다. 2013년에는 처음으로 황혼기 단기출가학교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했다. 기존의 단기출가학교는 20~60세까지 연령 제한으로 고령자들의 참가가 어려웠다. 또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가정을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은 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른 문의들이 끊이지 않자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심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느슨해진 출가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가장 큰 의미는 한국 불교의 전통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모범 사례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단기출가학교 관계자는 “단기출가학교를 체험한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야말로 타성에 젖은 스스로의 생활방식을 타파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체득했고, 불교 수행과 산사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하기도 했다”면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의 성공은 배제와 경쟁이 일사화된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어떤 좌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입증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참가자들이 상원사 적멸보궁에 오르는 길에서 3보1배를 하고 있다.



제2회 미황사 청년출가학교에 참가자들이 스님을 따라 경행하고 있다.



정토회 백일출가 강좌 현장. 현재 26기까지 진행됐다.

2004년 개교 월정사 단기출가 출가 문화 확산... 세상에 알려 '불교 나아가길 보여준 사례'

정토회 '백일 출가'도 호응 높아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인기몰이' 단기출가학교 설립 준비 제정해

이러 “초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변화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식의 개발은 여전히 과제”라며 “현재 월정사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명상마을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출가 이후의 심화과정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단기출가 재출가나 심화과정에 대한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년출가학교’ 사업도 출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2014년까지는 교육원 주최로 해남 미황사에서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소관부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으로 옮겨 월정사에서 ‘청년마음출가학교’로 진행됐다.

청년출가학교의 경우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안적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였다.

2012년 7월 1일 처음 열린 청년출가학교에는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도법 스님(실상사 회주), 해민 스님(미국 뉴햄프셔대 교수), 조성택 교수(고려대), 고미숙 씨(고전평론가) 등 정당한 강사들이 교수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20대 청년들의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출가학교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270명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들의 한국 최고 수재들이 모인다는 KAIST, 서울대 재학생을 비롯해 화가 지망생, 의대생 등 이력도 가지각색이었다.

이 밖에도 정토회의 백일출가도 호응이 높은 단기 출가 체험이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체험 후기들을 살펴보면 100일 간의 출가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을

을 말하고 있다. 정토회 백일출가는 만 배 입재로 시작해 나눔의 장-일체의장-불교사상강좌-NGO실무실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 2회 출가자를 받는다.

백일출가자는 조석예불-발우공양-소임-일수행-참회정진-불교사상강좌-마음나누기 등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며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 주된 되는 삶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같은 단기 출가는 이제의 중법으로 출가 유형 중 한 가지로 인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94차 임시회에서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는 중앙종회 차원의 출가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되고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회의를 거둬 나온 결과물이다.

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기출가 운영 사항은 교구본사별로 둘 수 있게 됐으며, 단기 출가자가 1년 이상을 수행생활하고 정식 출가 절차를 밟을 경우 종단에서 시행하는 2주간의 교육과 5급 승가교시를 합격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 호국불교조계종

2016 새해새싹 자비망명 온누리

중앙원로의장 삼장 (산청군 삼장면 삼장사) 원로의원 대응. 법수

교육원장 봉덕 (거창읍 중산길 봉덕암, 010-8582-1309)

포교원장 운암 (의령읍 벽화로 문황사)

감찰원장 서암 (동래읍 은천 약사사)

우리춤, 한국무용원장 조론심

총무부장 정무 (수영구 지장암)

재정부장 무여 (동래구 법전사)

규정부장 정학 (전포동 수도암)

홍보부장 청오 (대구 달서구 흥주암)

감사부장 청타 (해운대 관음사)

중단고문변화사 허중범 (부산) 중단 사무처 : 총무 010-4566-4504

중앙종회의장 일봉 (포항 남구 관음사, 011-508-3100)

총회의원 옹현, 진여, 무천, 법광, 연화, 범희, 참희, 원희, 관희, 석수, 재현, 헤림, 범주, 덕행, 도경, 관우, 회장, 교각, 범무, 무상, 청곡, 변파, 해광

중앙비구니회장 창희 헤명 (부산 부암 백광사, 010-4751-3806)

비구니부회장 의광 (대구 평리 약사사)

비구니회총무 무여 (부산 동래구 법전사, 011-9505-1560)

비구니회감사 천희 (경주 안강 상원사)

비구니 회원 무향, 묘향, 진여, 연화, 참희, 원희, 관희, 범희, 재현, 법광, 헤림, 진실, 법연화

전국각교구원장

총무원 직할 (서울교구)

대구총무원장 의 광 (약 사 사, 016-9884-0860)

울산총무원장 대 일 (마하선원, 010-3434-8034)

거창총무원장 봉덕암 (거 창 읍, 010-8582-1309)

창원총무원장 범 헤 (부 용 암, 010-8729-9600)

사천총무원장 무 무 (연 지 암, 010-4595-2120)

의령총무원장 운 암 (문 황 사, 010-4551-5143)

포항총무원장 일 봉 (관 음 사, 011-508-3100)

부산총무원장 무 여 (법 전 사, 011-9509-1560)

경주총무원장 상원사 (안 강 읍, 010-3187-6337)

종도와 불자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社)護國佛敎曹溪宗 총무원장 유심 성도 jogyejong.kr

총무원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31번길 16 부산역앞 관음정사 전화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 모바일홈페이지 http://m/jogyejong.kr 부설단체 051)442-5658 / 부산대학병원신신및장기중모임 /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증 업체

수봉전자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앰프

부산시 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종합시장 1층 7호문)

홈 http://www.kukjeav.com 010-3832-8855 수봉 합장

우리춤체조, 한국불교무용연구소 (자격증반 수시모집)

가름빈가 무용단 (각종불교행사) / 살풀이, 해원무, 오공양작법, 기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9-30 / 051)512-0115

원장 조론심 010-3834-6677